

안녕하십니까? 지식캠퍼스의 김원중 교수입니다.
오늘은 논어의 제5장 소소한 일상을 즐겨라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삶의 중요한 가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게 뭘까요?

한마디로 민사신언, 일에는 민첩하고 신언, 말에는
신중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좀 딱딱하죠.

맨날 일만 하고 그다음에 말은 신중하게 하면 그런 말만
해야 됩니까? 아주 그냥 남들이 봤을 때 꼭 정제된 이런 말만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공자는 전제를 했습니다. 뭐냐면
식모구포 거무구안. 즉, 먹는 데 있어서 배부름을 구하지

말고, 사는 데 있어서 편안함만을 추구하지 말아라. 말하자면
너희들이 즉, 공자의 제자들한테 주로 당부한 말이죠.

너희들이 먹는 데 배부름 즉, 경제적인 문제를 추구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고 또 사는 데 편안함만을 추구하다 보면 학문을

할 때 문제가 생긴다라는 얘기를 했죠.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대번 생각을 하실 겁니다.

아니, 이것이 소소한 일상과 무슨 관계가 있냐? 사실 먹는
데에서 배부를 때 기분 좋고 또 살 때 편안한 데서 기분이

좋은데 이렇게 오히려 오해할 소지가 있죠. 그런데 이것은
공자가 생각할 때 절제와 청빈,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적인

이익을 탐하거나 또 자기의 분수에 어긋나는 그러한 의식의
문제를 추구하면 탈이 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공자가

얘기한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요즘처럼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 성공 아니면 맛집탐방 이런 것을 주로

가지고 가치관을 흔들고 있죠. 그런데 공자의 이 말은 왠지
좀 어리숙해 보이죠. 또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좀 그렇게

절제와 청빈의 삶을 추구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공자의 이 말 자체는 안빈낙도.

즉, 가난한데 편안하고 도를 즐긴다는 그러한 선비의
기본자세가 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즘처럼 자본주의

사회에서 무슨 안빈낙도냐고 또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얼마 전에도 이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행복지수는 돈을 버는

액수와 꼭 비례하지 않는다. 특히 국민소득이 2만 불,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불 이상이 넘어가면 오히려 그때부터는

행복지수가 그 이전보다 떨어진다는 통계 수치가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공자께서 왜 이런 얘기를 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죠. 공자는 제자들과요. 소소한 일상을
즐기는 것을 대단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공자가

이제 자로와 증석, 염유, 공서화 이러한 제자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죠. 그런데 그 공자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달리 3년 만에 나라를 잘 다스리겠다고 하니까 너무

공자께서는 황당했던 거죠. 너는 사실 그 정도 능력은 안 되고 사실은 소소하게 정말 우리가 일상생활을 즐기면서

충분한 행복이 있는데 너처럼 맨날 나라 다스릴 걱정만 하고 이렇게 살지는 말자라고 생각했던 거죠. 왜? 그 공자의 다음

말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공자가 같은 질문에 대한 증석의 답변을 듣고서 동조하는 내용이 나오죠. 증석이라는 제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늦봄에 봄옷이 완성되고 나면, 어른 대여섯 명과 어린아이 예닐곱 명과 함께

기슭가에 가서 목욕하고 무라는 곳에 가서 바람을 쐬며, 노랫가락이나 읊조리다 돌아오는 것이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얘기했죠. 그랬더니 아까 자로의 말에서는 쓴웃음을 지었던 공자께서 그 증석의 이 말을 듣고는

감탄하면서 그래, 나는 바로 증석과 함께 하겠다고 얘기를 했죠. 이 말은 무슨 의미죠? 공자의 삶 자체가 14년 동안

중원을 떠돌아다니면서 정치도 그랬고 왕들과 제후들과 많은 이야기도 나눴지만 결국은 일상의 행복은 이러한 정말

기슭가에 가서, 냇가 가서 목욕하고 그다음에 그러한 누각 같은 데 이런 데 가서 그냥 바람 쐬면서 노랫가락이나

읊조리고 이런 데서 오히려 진정한 행복이 있다고 이렇게 본 거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직장생활하시면서 늘 승진 걱정하고 늘 어떡하면 돈을 벌 걸 걱정하고 어떡하면 편안하게 살 것을

걱정하고 이렇게 사는 것보다 정말 주말이라든지 또 일상에서 소소하게 또 때로는 정말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의 행복을 찾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아마 물론 공자께서 이런 말을 한 이유가

그 당시 제자들과의 대화 속에서 늘 정치적인 이야기하고 인이라든지 신이라든지 많은 어찌 보면 교훈적인 얘기를

했지만 공자의 진정한 속내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제자들과 함께 정말 이렇게 자연과 더불어서 한 번쯤 읊조리고 노닐고

또 거기에서 삶의 소소한 의미를 찾는 데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